

- 홍우석(洪祐錫)

무과(武科)급제자로 1856년(철종 7) 7월 20일에 부임하였고, 1857년 12월 1일에 암행어사의 탄핵에 의해 파직되었다.

- 홍일섭(洪駟燮)

1908년(융희 2)에 부임하였고, 조선왕조 최후의 군수였다.

- 황이중(黃履中)

무과(武科)급제자로 1641년(인조 19) 4월 11일에 부임하였고, 1642년 6월에 좌천되었다.

- 황집(黃緝)

무과(武科)급제자로 1627년(인조 5) 4월 2일에 부임하였고, 같은 해 9월 12일에 약재를 상납하지 못한 연유로 파직되었다.

3) 일제강점기

- 심상희(沈相熹)

1914년에 부임하였고, 같은 해에 평해군이 울진군에 편입된 후 영월군수로 진출되었다.

- 이명건(李命健)

1911년에 부임하였고, 국권강탈 후 처음 군수로 임명되었다.

제6절 기타 인물

1. 고승(高僧)

- 양성법사(養性法師)

법사(法師)의 이름은 혜능(惠能)이고, 자(字)는 중열(中悅)이다. 5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로 고려 말(末)에 우거(寓居)한 영양 남씨(英陽南氏)의 후예로 1442년(세종 24)에 울진군 매화면 금매1리에서 출생하였다. 모(母)는 담양 전씨(潭陽田氏)이며, 모친이 꿈에 하늘에서 신선이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법사(法師)를 낳았다고 하여 어릴 때 이

름을 몽선(夢仙)이라 하였다. 법사의 타고난 바탕은 입이 무거워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말하지 않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돈독하여 화락함이 남과 달랐다.

12살 때 응철(應哲)스님의 승자(僧子)가 되어 불영사(佛影寺)에서 수계(受戒)를 한 뒤, 8년간 불교의 경전(經典)을 공부하였고, 척조대사(尺照大師)에게 묻고 배워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다. 성품이 어질고 후하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였고, 계율(戒律)을 엄하게 지켜 도인(道人)의 풍모를 갖추었다.

1500년(연산군 6)에 불영사 선당(禪堂)을 중건(重建)하고, 그 후에 전국의 사찰과 두류산(頭流山)·금강산(金剛山)·오대산(五台山)·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白山) 등의 명산을 순방하면서 수행(修行)하니, 그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또 도(道)를 강론할 때는 세속을 떠난 초연함이 있었고, 뛰어난 언행과 숭고한 풍모는 남이 숭상하고 우러러보는 도인(道人)이었다. 늙어서 불영사(佛影寺)에 다시 돌아와 안거(安居)하면서 수행정진(修行精進)에 온 힘을 다하였다. 수도하던 집에 양성(養性)이라는 현판을 달았고, 시(詩)를 잘 지었는데, 시(詩)는 모두가 염불삼매(念佛三昧)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어 나온 것이었다.

시(詩) 한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라만상을 담은 불경을 보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 森羅佛經日已昏
 밝은 달이 소나무 바람 따라 자줏빛 문에 비치네 / 松風羅月掩紫門
 그윽한 승방에서 그윽한 의취를 자득(自得)하니 / 幽居自得幽居趣
 한 순간의 맑고 한가로운 꿈이 번거롭지 않네 / 一境清閑夢不煩

법사(法師)는 1516년(중종 11) 12월 17일에 앉아서 열반에 드니 화수(化壽)가 75세이고, 승수(僧壽)는 64세였다. 화장(火葬)을 하는 날에는 서기(瑞氣)가 하늘에 뻗치더니, 드디어 금빛 사리 세 알[舍利三粒]이 나와서 불영사 앞 수십 보 지점에 부도(浮屠)를 세우고, 그 안에 봉안하였다. 수제자인 천옥대사(天玉大師)가 법사의 비를 세우고자 홍간해(洪干海)를 시켜 최석정(崔錫鼎)에게 비문(碑文)을 청하니, 옛적 당나라 때 한퇴지(韓退之)가 당시의 고승(高僧)인 대덕 사람 태전대사(太顓大師)를 잘 알듯이 친숙한 홍간해(洪干海)에게 양성법사(養性法師)의 행적을 상세히 묻고 다음과 같은 비문을 지었다.

부처님의 오묘한 뜻은 견성(見性)을 보는 것이 가장 요긴한데 / 釋有妙旨 觀性最要
 대사는 일찍 깨우쳐 그 이치를 꿰뚫어 보고 / 師能蚤悟 觀破幽
 참다운 사리(事理)를 얻었으니, 삼승(三乘)을 뛰어 넘었네 / 乘得眞銓 克闡三乘

2. 장인(匠人)

• 필공(筆工) 이호익(李浩翼)

전주인(全州人)으로 자(字)는 경홍(景鴻)이고, 전주 이씨(全州李氏) 의안대군파(義安大君派) 울진 입향조인 이제문(李制文)의 13세손이며, 이주성(李周聖)의 장남이다. 1882년(고종 19) 12월 20일 울진군 북면 주인 2리[中里]에서 출생하였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닦았다. 특히 섬세한 수공(手工)으로 붓을 만드니, 울진지방은 물론 영동(嶺東)과 영남(嶺南) 지방에 까지 붓의 우수함이 알려졌고, 많은 학도들과 선비들에게도 이필공(李筆工)의 명성이 알려지고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가 만든 붓을 찾는 사람이 많았으며, 귀중품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1948년에 영양(英陽)에 사는 정씨(丁氏)가 그를 찾아와 붓을 매는 법을 배우며 종사(從事)하였고, 1951년 2월 17일에 그가 사망한 후에는 상경하여 서울 인사동에서 유명한 성문당 필방(誠文堂筆房)을 운영하였으며, 나중에는 그의 아들에게 전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장에는 그의 후계자가 한 사람도 배출되지 못하였음이 매우 안타깝다. 이필공(李筆工)의 붓은 삼통필(三筒筆), 양통필(兩筒筆)이 특히 유명하며, 오래 쓸수록 결이 좋아지고, 붓털이 다 닳아도 시장에 나오는 붓보다 좋다는 평이 있었다. 당시 울진의 선비들이 붓글씨를 잘 쓴 것은 필공이 만든 붓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추정된다.

항지원·임삼조